

승냥이FM 피해 및 대응현황

~피해~

무성애 가시화 운동의 일환으로 **ACE STORY**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지트 사용료를 내야했습니다. 더운 여름 냉장고와 에어컨의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힘들게 녹음을 했습니다. 케이 본인은 편집일이 빠세다는 이유로 대본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꼼꼼하되 성긴 대본"을 짤 것을 요구했으며 디제이들이 짜온 대본을 매번 혹평했습니다. 대본작업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녹음 직전에야 대본을 살펴서 녹음시작시간을 뒤로 늦추게 만드는 바람에 매우 늦은 시간에 녹음종료가 되어서 택시귀가한 디제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물론 택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디제이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편집진들을 헐뜯었습니다. **A**님은 팝필터에 가까이 대고 녹음하지 않는다면 매번 깎지만 사실 케이 녹음파일의 음질이 제일 나빴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B**님과 **C**님의 분량을 통편집해놓고 음질을 핑계했습니다. **C**님께는 재녹음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케이의 실수로 재녹음을 해야 했던 일이 2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종합적인 방침이나 진행에 대해 디제이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다보니 디제이마다 갖고 있는 정보량이 달랐는데 정보량이 적은 디제이에겐 다른 디제이들은 다 아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타박했습니다. 케이의 독단적이며 비합리적인 진행방식에 디제이들과 편집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휴식기간을 가질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하고 오히려 특집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응현황~

승냥이FM 팟빵에 업로드된 파일을 모두 삭제, 게스트의 동의를 이루어진 회차에 한하여 대본을 백업, 녹음파일은 케이가 서버연결을 끊어버려서 백업을 못하였으나 **ACE STORY** 오프협의자를 통해 전달받기로 함, 녹음장비와 공금에 대한 처분은 **ACE STORY**에 맡기기로 함.

<ACE STORY 피해 및 대응현황 (2018-03-07)>

안녕하세요. ACE STORY 팀원 일동입니다.

네이버 무성애자 커뮤니티 'A community, 승냥이 카페'(이하 승냥이 카페) 내의 프로젝트 소모임으로 진행된 ACE STORY는 2016년 11월 3일에 진행을 시작하여 2016년 11월 13일에 첫 글을 포스트 플랫폼에 공개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8일에는 책자 1에 대한 텀블벅을 개설하여 2017년 6월 26일에는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쿼터문화축제에는 동일한 이름의 3번 부스로 참여했었습니다. 2017년 8월 9일에는 책자 2에 대한 텀블벅을 개설하여 2017년 9월 26일에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4일에 책자 3에 대한 텀블벅을 개설하였으나 그달 말인 10월 31일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ACE STORY 1권 텀블벅 (2017년 4월 28일 개설) <https://tumblrbug.com/acestory>

ACE STORY 2권 텀블벅 (2017년 8월 9일 개설) <https://tumblrbug.com/acestory2>

ACE STORY 3권 텀블벅 (2017년 10월 14일 개설) <https://tumblrbug.com/acestory3>

2017년 10월 25일 이후 승냥이 카페와 그 소모임인 ACE STORY를 비롯하여 에이로그, 논모노로그와 행성인, 여행자 등에서 활동했던 전 활동가 케이(이하 케이)의 성폭력과 공금횡령, 노동착취에 대한 다수의 폭로가 트위터상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K_archive_ 트위터 계정과 @Pleasetellme_ 트위터 계정에서 사건의 내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 이후 2017년 10월 29일 새벽에 케이는 “모든 쿼터 단체 및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친목 목적으로 참여하는 카페 활동과 오프 모임 모두 포함됩니다. 성추행과 성폭력의 가해자로서 쿼터 단체나 커뮤니티에 잔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장을 담은 입장문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ACE STORY 팀원 일동은 ‘성폭력 가해자의 글은 폐기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책자 3에 대한 텀블벅 프로젝트를 종료하며 UE9에 불참을 결정하였고, 재고 전량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는 며칠 후인 2017년 11월 1일에 본인이 게시했던 위 입장문을 삭제하였고, 11월 10일에 “저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닙니다. 일측의 이야기만 듣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11월 11일에 “제가 성추행과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것은 우리가 있었네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깐 저도 그런 것인줄 알았거든요. 해당 내용은 심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을 때에 작성한 것입니다. 고로 위 발언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케이 단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하여 41명의 필진과 1명의 디자이너가 무성애 가시화를 목적으로 선의에서 참여한 ACE STORY 프로젝트 그 자체에까지 불명예스러운 인이 찍혔음에도, 그가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케이는 ACE STORY 팀에게 ACE STORY가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며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라면서 이견이 있으면 소를 제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CE STORY 팀원 일동은 그동안 케이(이하 케이)가 진행을 했을 뿐, ACE STORY를 카페 내의 프로젝트 소모임이며 공동의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참여해왔습니다. (케이의 일이 공론화된 후, ACE STORY 팀은 승냥이 카페와 텀블벅, 네이버 플랫폼 등에 ‘ACE STORY 프로젝트 소모임’에 대해 여러 차례 홍보된 글들을 모두 PDF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ACE STORY는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익명을 중시하여 1:1 개인 카톡방이나 메일로 진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단체 카톡방을 통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며, 텀블벅을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된 글의 경우 교열/교정을 포함한 내용 검수를 편집진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대외적으로도 2017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쿼어문화축제 측에서 ACE STORY를 단체 또는 팀으로 인식하며 부스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고, 텀블벅 후원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ACE STORY를 단체 또는 팀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든 대화는 메일을 통해서 진행하자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는 ACE STORY가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이므로 단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개인적인 카톡이나 전화로써 사사건건 팀원 개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무분별하게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지분의 경우, 원가에 매입하여 판매가에 판매하는 등의 폭리를 취했음에도 케이는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ACE STORY 팀원 일동은 케이가 공동 프로젝트에서 횡령 및 사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ACE STORY 팀에게 ACE STORY에 관련한 회계 자료나 통장내역 등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ACE STORY 팀은 법대의 교수님으로부터 공동 프로젝트 수익 비용을 개인 통장에서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며, 통장내역에 있어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계좌번호뿐이므로 이 부분만 지워서 보내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케이는 자신의 통장내역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계사 측에 직접 컨택하고 싶다고 하며, 자신이 컨택하는 회계사 비용을 ACE STORY 운영자금에서 차출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회계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출하고 오겠다면서, “만약 마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를 진행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를 따지고자 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따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ACE STORY 팀은 케이가 ACE STORY 프로젝트에서 사임한 전 활동가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운영자금을 운용하는 문제는 팀원 일동의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고, 처음에는 분명 회계비용을 케이가 부담하겠다고 직접 메일에 명시하였는데 뒤늦게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ACE STORY 팀은 세연회계법인에 이 문제를 의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보고 회의를 했는데, 업무수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적발감사수임료가 대개 1-2000만원 정도 하는데, 전체 사용액으로 적어서 그 정도를 부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저희가 단순기장으로 해드린다 해도 결국 경찰서나 검찰에 보내시는 자료로 활용할 것 같아서, 단순기장도 진행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사용금액이 적으셔서, 직접 증빙 없는 금액을 찾으시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ACE STORY 팀은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문의를 해보았고, 방문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ACE STORY 2권 텀블벅(<https://tumblrbug.com/acestory2>)에 대한 후원금 분배에 대해서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케이는 분배를 받을 필진들에게 개인 카톡방으로 일일이 구글폼을 보내면서 케이가 제안하는 분배안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겠다고 48시간 내에 응답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확인절차는 48시간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안에 문의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최대 7일까지 문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내에 어떤 문의도 남기지 않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문의를 남겨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본인을 증명하고 금액을 수령해가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수령하는 분배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안타깝지만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민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으니 문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문의를 남기시는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에 몇몇 필진들은 회계내역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 가 멋대로 짜온 분배안과 분배금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3명의 필진이 공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공탁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꽤나 절차가 복잡하여 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탁신청은 먼저 회계검수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그 이후 회계검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해드립니다. 이후 계좌번호를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탁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소와 성명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조 후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서 정확한 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공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고 ACE STORY 팀은 ‘팀원들은 케이한테 직접적으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 주소를 알아낸 것인가? 텀블벅 후원 당시 작성하였던 그 주소를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텀블벅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서 텀블벅 측에 문의하였습니다. ACE STORY 팀은 아웃팅에 민감한 성소수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휴대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아이드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일절 케이한테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케이 가 팀원들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루트는 텀블벅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케이 가 텀블벅을 통해서 입수한 것이 아닐지라도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팀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했으리라 추측됩니다.

ACE STORY 프로젝트의 자금은 모두 후원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젝트 수익은 텀블벅을 통해 모으기 시작했으며, ACE STORY 프로젝트의 텀블벅에는 빠짐없이 후원금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로 발생한 모든 금액은 후원자들의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명시된 목적인 ‘무성애 가시화 운동’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케이 본인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사용만을 고집하여 후원자들의 인식과 반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후원자들의 선의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지속한다면 케이 가 이제까지 해왔던 실수인 ‘타인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함’은 끊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며 또 다른 문제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 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을 더 만들지 않으려면 응당 ‘후원자들의 인식과 의사’가 어땠는지, ‘참여자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지금이라도 신경쓰고 우선으로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영리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무성애에 대한 ‘후원자들의 선의’와 ‘참여자들의 자발적 유급 봉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인식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CE STORY의 필진들 중 상당수가 참여자인 동시에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참여자이자 후원자인 이들의 인식은 당연히 후원금의 처리에 있어서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텀블벅의 다른 프로젝트들은 후원금에 대해서 ‘제작에 사용된다’ 정도로 명시한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책 프로젝트인 ACE STORY 프로젝트의 책에 대한 수익금 역시 무성애 가시화 운동에 사용될 거라는 것이 후원자의 상식적인 예상일 것입니다. 만약 케이 가 참여자와 후원자의 인식보다 자신의 인식만을 우선으로 한다면, 텀블벅에서 ‘후원’이라는 워딩을 쓴 것은 물론 문제가 되거니와 2017년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ACE STORY 부스에서의 판매는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책의 수익금이 제작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이미 책을 판매하는 것은 ‘후원’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이는 이익의 주체가 쿼어인 영리활동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책 자체가 가시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영리적인 성격을 띄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지식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출판사들이 비영리단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판매 활동은 쿼어문화축제와 시청광장에서 승인한 성격에 반하는 것이므로, 책 수익의 대부분이 참여자들에게만 분배되는 것이라면 ACE STORY 부스에서는 뱃지 판매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후원자들은 쿼어문화축제 부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후원과 리워드에 대해 ‘쿼어인 판매자에게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쿼어에게 좋은 일’이라는 인식으로 선뜻 지갑을 엽니다. 후원자들의 인식을 무시한 채 책 수익이 참여자 분배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후원자들은 해명을 요구할 권리와 후원을 철회할 권리, 그리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케이의 분배금 측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는 배분안을 짤 때에 본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필진 개개인은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는데에 비해, 케이는 최대 1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다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측정 방식입니다. 본인의 업무량을 본인이 직접 금전적인 가치를 매기고, 혼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공적인 성격을 가진 후원금을 쓰는 행태가 아니며, 영리적인 개인사업에서나 가능한 행태입니다.

과연 ACE STORY 팀원들에게 자의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매기라고 했다면 지금과 동일한 분배안이 나왔을까요? 누군가는 자신의 글이 더 매력적이며 더 큰 비율의 분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프로젝트가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며, 프로젝트 수익이 ‘후원’으로 활용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비용 역시 영리적인 목적에서 이용되는 외주가보다는 커미션가에 가깝게 책정되었습니다. 디자인 인력들이 프로젝트 주최자의 분배금이 이 정도가 될 줄 알았다면 과연 그 가격에 작업을 했을까요? 책의 분배금이 대부분 제작자에게 나누어지고 그중 상당수의 비율을 프로젝트 진행자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만큼의 필진들이 참여하였고 적은 배분비율에 동의하였을까요?

“텀블벅 진행 관리자에게는 추가보상의 70%를 할당한다. 예측되는 바 추가보상은 순이익이 200만원은 넘겨야 생기게 된다. 그래서 추가보상이 존재할지는 의문이지만...” 위와 같은 분배안의 문구가 그러합니다. 텀블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 없는 참여자라면, 저런 문구를 보고 ‘순이익이 200만원이 넘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케이의 최초로 진행했던 에이로그북의 경우, 텀블벅 후원액은 1000만원 이상이었던 반면에 700권의 책을 발주하는 비용은 14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포함된 굿즈와 배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책의 순이익이 200만원쯤은 가볍게 넘어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에서 케이의 진행했던 번역책자 프로젝트 역시 텀블벅 후원액이 6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책 주문수량이 비슷하며 페이지수가 에이로그북보다 적은 것을 감안할 때, 그 발주비는 더 저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200만원은 가뿐히 넘는 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텀블벅에서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하여 순이익이 200만원을 가볍게 넘는 것을 겪어본 케이의 “추가보상이 존재할지는 의문이지만...”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의도적임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여지가 다분하며, 의도적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여자와 진행자 간의 정보의 격차를 벌려 분배 협상의 주도권을 불공평한 방법으로 틀어쥐었던 게 됩니다.

또한 1권의 수익분배에서 케이는 충분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추가보상에 대해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ACE STORY** 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권에 참여했던 필진이 기입한 내용 중에서 ‘배분하는 내용에도 2만원 미만일 경우 **MT비**로 사용한다는 식의 말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로 수입이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권의 수익 상황을 알고 2권의 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어렵듯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2만원 미만일 경우를 상정해서 안내하는 것은 충분히 참여자가 후원 규모를 잘못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MT비**에 대한 합의를 얻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안내하려 했었다면, 최대한의 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찬가지로 안내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의 후원 규모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배분 비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있는 그대로 **ACE STORY** 1권의 경우 이 정도의 수익 배분이 발생하였다는 안내가 적절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 별다른 회계 결산 및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개인 프로젝트로 인식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참여자들이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배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진행 전에 ‘경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당장 비율을 파악할 수 없는 선에서 안내가 되었다면, 진행 후엔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런 비율이 되었습니다’ 정도는 고지하는 것이 그러한 분배안을 설정한 사람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된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배송이나 부스 운영 등의 잡무를 함께 수행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프로젝트 배분율을 제시하고, 참여자가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수익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정녕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배분만 있고 실금액을 짐작할 수 없는 동의 절차는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2권을 제작할 때는 1권의 배분율이라는 충분한 참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2권 이후의 필진들이 입막음용 동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기를 바랐다면, 1권의 수익이나 배분율을 얼마든지 참고 자료로 제공할만합니다. 공개했을 때 문제되는 걸 고려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리고 축약하면 되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니, 배분율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필진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케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얼버무려서, 참여자들이 모든 수익을 축소해서 예상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3권 필진의 응답 중 ‘케이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수익이 남긴 남아요?”라는 질문을 했다.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 답변은 “그래도 남긴 남죠.”였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ACE STORY** 1,2권의 수익을 본 케이에게 대략적인 배분금을 예상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상 수익을 축소하는 “그래도 남긴 남죠.” 같은 답변이 아니라 1,2권은 ‘최소와 최대는 얼마였다,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예상된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케이는 실제로 돌아가는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주고 있었던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3권 텀블벅을 진행하는 시점까지도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케이가가 가져가는 배분 금액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불평등한 상황에서의 합의를 과연 제대로 된 합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설문 결과를 참고하면 배분 비율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수익을 원해서 참여한 게 아니므로’ 개의치 않거나, 혹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믿어서, 수익성 프로젝트인 걸 몰라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익성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와 수익을 나누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 배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ACE STORY** 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젝트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일 것을 예상했었냐는 질문에 프로젝트 자금, 무성애 가시화 활동비, 승냥이 카페 등에 높은 비율로 사용되리라고 예상했다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응답한 바 있었습니다. **ACE STORY** 프로젝트를 후원과 활동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분배안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좋게 넘겼던 것이지, 만약 ‘책 후원금=참여자의 수익’이라는 게 고지된 상태에서 동일한 분배안을 돌렸다면,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는 분배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텀블벅 관리가 인원이 많아질수록 힘들고 리스크가 크다”, “노동강도에 비해 적은 비율을 처음에 책정했고, 그래서 많이 팔렸을 때 적당한 보상을 받게 설정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케이의 업무는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도 텀블벅 진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편파가 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사이에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납득되지 않아서 미심쩍어 했던 부분들은 전부 케이의 ‘승냥이 카페의 매니저’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그 신뢰로 메꾸어졌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텀블벅 관리 업무의 노동강도가 너무 높아서 금액을 많이 배분했어야 할 정도라면, 차라리 텀블벅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할 사람을 따로 더 모집하여 일과 배분금을 나누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도도 없이 혼자서 큰 비율을 배분받는 것은 업무에 대한 배분이 아니라 자신의 뒤통에 대한 배분이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케이이 제시한 근거 중 ‘반품 및 교환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공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금전적인 리스크로 지겠다고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비용처리는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불합리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명단과 문의를 관리하는 것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배분율이 증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번거로운 업무라면 서베이를 누락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에이로그북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에 의하면 팀원 두 명이 연락하는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비밀유지서약 같은 것을 통하였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분담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스스로가 설정한 업무량이 과다하다며 상식 이상의 높은 비율을 책정했던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대응 현황

ACE STORY 팀원 일동은 케이와 2017년 10월 29일 일요일부터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협의를 하였고, 도중에 2017년 12월 2일 토요일에는 외부 중재자를 두고서 ACE STORY 팀원 일동을 대표하는 두 명과 케이이 협의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등, 느리지만 꾸준하게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ACE STORY 공금 반환은 대부분의 액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협의가 필요한 액수가 반환되지 않은 공금에 대하여 케이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분배안 역시 재조정을 요구하였고, ACE STORY 재고 전량을 폐기 처분하였으며, 기존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의 권한을 가져와 공론화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후 ACE STORY는 2017년 12월 26일 월요일부터 2018년 3월 5일 월요일까지 협의를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 케이와 다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협의는 보류된 상황이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5opK-06TTgfulou5el-6PbEDo7zTgcjNjEh3Fa7v5E/edit?usp=sharing>

현재 케이스는 필진 중 1명에 대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자신은 성폭력가해자가 아니며 사과문을 쓴 적도 없고 카카오톡과 이메일은 해킹을 당해서 현재 자신이 사용 중이지 않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고 합니다.